

함평군, '2023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나흘간 서울서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등 집중 홍보 "지역 관광자원 홍보 통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

함평군이 '2023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오는 28일 개막하는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시식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명준 기자



무안군 몽탄면 이장협의회, 4월 정례회의...군정사업 전달

무안군 몽탄면 이장협의회(회장 옥은호)는 지난 12일 몽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4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각 마을 이장 45명 및 직원,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제54회무안군민의날 행사, 재활용품 교환사업,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위기기구 집중 지원사업, 농촌주택계량사업 등 주요 군정사업을 전달했다.
몽탄면장 오정미는 "제54회 군민의 날이 4년 만에 옥의 행사로 성대하게 치러지므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며 "항상 민정에 협조해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매간당고택 1박2일 체험 사업' 시작

'이효재와 함께 효자 낚는 전통혼례식' 운영

영광군은 오는 4월 29일부터 전라남도 종가회 영광지부와 함께 영광 매간당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3년도 고택·종가 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

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으로 군남면 동간리 동편마을에 있는 매간당고택과 영광 일원에서 진행된다.
매간당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로 지정되어있으며 민가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동 125칸을 자랑한다. 지방 상류층의 주택 구조와 생활양식을 연구하는데 우리 귀중한 자료이자 3대에 걸쳐 효자를 배출한 다양한 이야기 소재가 가득한 곳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방송인 이효재씨가 진행하고 대한민국 전통혼례명인 백종희씨가 집례하는 '전통혼례식'이며, 이외에도 '매간당 고택에 새겨진 효자낚는 비밀' 인문학 강의와 고택 외손녀의 축하공연, 혼례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영광 매간당 고택 프로그램은 4월 29일 1회차를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총 7회가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영광매간당고택체험 홈페이지 (<https://yeonggwanggotak.modoo.at/>), 전라남도종가회 영광지부 이메일(ssw1071@naver.com), 인스타그램 #영광매간당체험 검색 또는 영광군청 문화관광과(061-350-5225)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하당보건지소, 장애발생 예방교육 실시

목포시 하당보건지소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낙상예방교육과 학생 대상 후천적 손상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낙상예방교육은 올해 교육을 신청한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법과 생활운동 방법을 교육하게 된다. 또한, 하당보건지소는 초등 및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후천적 손상 예방교육'을 13개교 1,37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후천적 손상 예방교육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가 실제 본인의 사례를 소개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손상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장애유형 및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을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및 생활주변의 사고와 낙상은 골절과 외상 등으로 치명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아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4 바다탐험대 발대식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갯벌 중요성 인식시켜 바다지킴이 실천 앞장



신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유미)에서는 박우량 군수, 고인숙 군의원, 윤현승 이사장과 관내 어린이,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 공연장에서

1004 바다탐험대 발대식을 4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최유미 센터장이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보전본부 유치를 기념해 특화사업으로 기획했다.
1004 바다탐험대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다지킴이 교육을 받게 되고 분리수거 등 생활 주변 청결 활동을 펼쳐 바닷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분리수거 하기, 갯벌 사랑하기를 실천하도록 서약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인형극 건강 미녀와 편식 야수 공연도 열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신안 갯벌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1004 바다탐험대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암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40명 교육 실시

영암군은 14일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4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사용자 교육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집중거주지역인 삼호읍 대불산단내(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인노무사, 전남인권교육 위촉강사, 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노무관리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의 이해 ▲산업재해예방 ▲외국인 인권 보호에 관해 교육했다.
군은 코로나-19 제한 완화와 조선업 호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에 필요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근로자 친화적 체류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의 존엄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